

# 민주 8월 전대 확정... 이낙연 행보 관심

### 이해찬 대표 "시스템 따라야" 비대위 추대안 없던일로 송영길·홍영표·우원식 등 후보군, 당권 도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추대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다. 그동안 당 내에서는 '대선 1년 전에 대권 주자는 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 규정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정인을 추대하는 등의 안이 거론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비상상황에서 당권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해 대권·당권 주자가 모두 모인 '용광로 비대위'를 만든 뒤 내년 3월께 당 대표 경선을 하자는 구상이 틀어지면서 이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는 '총선도 시스템을 통해 공천을 했듯이 당의 중요 결정도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미뤄 사실상 8월 전대가 확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전대준비위원회 구성과 일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 '온라인 전대'를 지르는 방안도 거론됐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차원에서 검토됐을 수도 있지만 이 대표는 온라인 전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검토를 지시한 바가 없고, 지도부에서도 공식 논의된 바 없다"면서 "온라인 문제는 당헌·당규 개정 사항은 아니다. 전당대회 방식은 앞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권 도전을 준비하는 후보군의 움직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당내 당권 주자로는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

우원식 의원이 꼽히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 낙선한 김부겸·김영춘 의원도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다.

5선이 되는 송영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범문(범문재인)으로 분류되며, 최근 전국을 누비며 21대 총선 당선인들을 만나고 있다. 4선이 되는 홍영표 의원은 전대 출마를 타진 중이다. 전문(전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 의원은 당내 전문그룹의 지지 기반이 탄탄하다.

4선이 되는 우원식 의원도 당권 경쟁에

뛰어올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당내 주요 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계열로, 전대 출마와 관련해 주변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했으나 여전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김영춘 의원도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또한 8월 전당대회 개최 결정에 따라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당 대표에 관심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낙연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야 5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

### 與, 비쟁점 법안 처리 추진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 전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한차례 분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 중이라 15일 분회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5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임시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법안은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 비쟁점 법안이라는 게 김 총괄수석의 설명이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

대표는 "20대 국회의 밀린 속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정'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 출입국관리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 고용보험 대상 확대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안을 거론하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기자회견을 열어 "5월 임시회를 열어 과거사법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통합당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 여야, 재난지원금 기부 릴레이

### 민주 지도부·초선 기부 선언...홍준표·박지원 동참 의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11일 여야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잇달아 나왔다.

여당은 '자발적 기부'라고 했지만 야권은 '국가채무 급증', '행정비용 절감'을 미신청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미신청 서명식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68명도 "우리의 십시일반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부하겠다"며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앞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며

"작은 보탬이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비서관은 "오늘 재난지원금을 카드 포인트로 수령했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소진하겠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 저 금액만큼 현금으로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그 이유로 "지난 총선 때부터 국가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붕괴된 경제 기반을 재건하는 데 사용하라고 촉구해왔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기부 언급 없이 "신청하지 않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 국회의장 후보들도 '초선 구애'

### 21일 경선...박병석·김진표, 손편지·카톡 메시지로 어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을 마친 후 따라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원내대표 경선에서 '초선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처럼 국회의장 경선 구도에서도 초선의 선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체 당선인(163명)의 41.7%를 차지하는 초선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1일경로 예상되는 의장 경선을 앞두고 현재 구도는 최다선인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 상태. 최근 두 후보 모두 당선인들과 접촉을 시작했으며 당내 특정 계보와 거리가 있는 초선 당선인들

에게 가장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자필 편지로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고, 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활용한다.

박 의원은 최근 초선들에게 보낸 손편지에 "당선 후 등원까지, 지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성의있게 해야 한다", "상임위는 전공을 살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을 권한다"는 등의 각종 조언을 담았다.

"편지가 도움이 됐다"는 피드백에 박 의원은 전화와 문자로 지역구 관리, 상임위 선택, 보좌진 채용 문제까지 1:1 멘토 역할을 자처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의원들에게 케이크를 보내고, 식사 자리를 잇달아 마련하면서 통합형 리더십을 어필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디지털 사회에 익숙한 젊은

감성을 택했다. 지난 8일에는 의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일이 디지털 서신을 보냈다. 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능력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방역 모범국가에서 경제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가는 길을 만들고 싶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12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과 오찬을 하는 등 맨투맨 접촉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정사상 처음으로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여성 의원들은 4선인 김성숙 의원을 단독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지만 '우리전장'을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일찌감치 부의장 도전에 나선 가운데 변재일·설훈·안민석(5선) 의원도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민주, 다음달 총선 백서 발간 총선 과정 고찰...미래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21대 총선 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한다.

민주당 21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총선 백서 제작을 위한 업무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백서는 다음 달 중 발간될 예정으로, 총선 과정에서의 성과와 한계점뿐 아니라 향후 당 진로에 대한 제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승패와 상관없이 백서를 제작하겠다"며 "단순히 총선 평가만 담은 것이 아니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당내 논의의 결과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주호영 "야당이 협조할 건 협조"

### 대구 조문 온 강기정 靑 수석 요청에 화답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위로를 전하고 입법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강 수석은 전날 주 원내대표의 부친상 빈소가 있는 대구 경북대 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약 20분간 조문을 했다.

강 수석은 계류된 법안들이 5월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하면서 남은 입법과제들이 원만하게 처

리된다면 협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강 수석의 당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발목잡기식의 국회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에 강 수석 역시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

MERITZ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 AXA | BNP PARIBAS CARDIF | The K | TMA | 한국외환은행 | 한국투자증권 | 한국생명보험 | 한국농협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수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